

대학생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남희¹, 이순영^{2*}

¹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Nam-Hee Jo¹, Soon-Young Lee^{2*}

¹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의 대학생 200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자가보고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에 대한 태도, 향후 헌혈참여 계획, 지각된 건강상태, 이타성, 헌혈경험 횟수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헌혈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헌혈에 대한 태도, 이타성 및 건강상태를 높여 줄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대학생, 헌혈, 이타성, 태도, 동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motivation for blood donation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0 university students in one area, and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data analysis used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were significant in the order of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future blood donation plan, perceived health status, altruism, and number of blood donation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o increase the motivation for blood donation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t also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blood donation, altruism, and health statu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Blood Donation, Altruism, Attitude, Motiv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헌혈은 혈액의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다. 헌

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헌혈이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수혈용 혈액의 경우 자급 자족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원재료가 되는 혈장성분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헌혈 후 혈액은 농축적 혈구의 경우 35일, 혈소판의 경우 5일까지만 보관할 수

*Corresponding Author : Soon-Young Lee(sylee81@ikw.ac.kr)

Received September 28,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Revised October 26,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있기때문에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혈자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1].

우리는 언제 수혈을 받을 상황에 처할지 알 수 없으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 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참여해야 한다[1]. 우리나라의 헌혈가능인구 대비 헌혈률은 43.4%이며, 헌혈에 참여한 대상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는 20~29세가 40.8%, 16~19세가 32.2%로 전체 헌혈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26.6%였으며 헌혈참여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20대 대학생이 앞으로도 헌혈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공혈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헌혈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집중적인 맞춤형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와 헌혈참여 동기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헌혈은 타인을 위한 봉사 정신에서 자신의 일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남을 도와주려는 이타주의 없이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며, 헌혈에 여러 차례 참여한 헌혈자의 이타성은 헌혈경험이 없는 무경험자의 이타성보다 높았다[4]. 헌혈에 대한 이타성은 대학생의 헌혈참여 의지를 높여 주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5] 인간애와 애타심은 헌혈의 주요 동기로서 나타나고 있다[6]. 헌혈에 대한 태도는 헌혈참여를 위한 잠재적 준비로서 고려되며 인식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로 구성된다. 인식적 태도는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인 지식이나 신념을 말하고, 정서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이며, 행동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행동성향을 의미한다[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헌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경우 헌혈 실천을 위한 헌혈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반면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헌혈에 대한 태도와 헌혈경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8]. 헌혈참여 동기를 세분화한 연구에서 헌혈자의 헌혈 참여는 자기만족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이타심과 순수 헌혈추구 및 자기만족 요인이 전체 동기의 70.2%를 차지하였다[9]. 그러나 헌혈참여의 주요 동기가 이타성과 연관성이 없고 책임감이나 의무감 같은 사회적 압력과 인센티브에 더 잘 반응한다는 보고도 있다[10].

대학생의 헌혈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헌혈

참여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헌혈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방안 제시와 대학에서의 사회적 책무를 포함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11].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의 헌혈참여 동기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와 헌혈참여 동기가 헌혈 실천 관련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선행 연구결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공혈자 그룹으로 기대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와 헌혈참여 동기를 파악하고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혈액 수급의 부족 상황이 더욱 우려되는 바이며 헌혈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헌혈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와 헌혈참여 동기를 파악하고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G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였

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이타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이타성을 측정하기 위해 1996년 조학래가 개발하고[12], 2014년에 공정희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13]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측정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996년 조학래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0이었으며, 2014년 공정희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70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79이었다.

2.3.2 헌혈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2004년 한미희가 개발하고[14], 2014년에 공정희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13] 총 2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측정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헌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00이었다.

2.3.3 헌혈참여 동기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2013년 이동한이 개발한[9]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으로 구성되었다. 측정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헌혈참여에 대한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이동한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03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헌혈참여 동기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헌혈참여 동기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이용하였고 차이가 있는 집단의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헌혈참여 동기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력(Enter)방법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성별은 여성이 68.5%, 남성이 31.5%였다. 나이는 21~22세가 51.5%, 20세 이하가 27.5%, 23세 이상이 21.0%였다. 전공계열은 보건의료계열이 50.0%, 비보건계열이 50.0%였다.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37.0%, '좋다'가 43.5%, '나쁘다'가 19.5%로 나타났다. 헌혈경험은 1~4회 경험이 45.5%, '없다'가 34.5%, 5회 이상이 20.0%였다. 향후 헌혈에 대한 계획은 '있다'가 81.0%, '없다'가 19.0%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63	31.5
	Female	137	68.5
Age	≤20	55	27.5
	21~22	103	51.5
	≥23	42	21.0
Major Department	Health related	100	50.0
	Non-Health related	100	50.0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39	19.5
	Moderate	74	37.0
	Good	87	43.5
Experience of Blood Donation(Times)	0	69	34.5
	1~4	91	45.5
	≥5	40	20.0
Future Plan for Blood Donation	No	38	19.0
	Yes	162	81.0

3.2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평균 이타성 점수는 $3.25 \pm .42$ 였으며, 헌혈에 대한 태도 점수는 $2.89 \pm .37$ 이었고, 헌혈참여 동기 점수는 $4.21 \pm .92$ 로 나타났다.

Table 2. Altruism,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N=200)

Variables	M±SD	Min.	Max.	Ran.
Altruism	3.25±.42	2.05	4.95	1-5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2.89±.37	1.32	4.00	1-4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4.21±.92	1.2	6.87	1-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타성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이타성은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9.67, 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 20세 이하와 21~22세 그룹이 23세 이상의 그룹보다 이타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76, p<.001$) 보건계열의 학생이 비보건계열의 학생보다 이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헌혈참여 계획 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40, p=.017$) 향후 헌혈참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의 이타성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에 대한 태도는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71, p=.007$),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경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9.02, 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 헌혈경험이 5회 이상인 그룹이 1~4회의 헌혈경험과 헌혈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헌혈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헌혈참여 계획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5.10, p<.001$) 향후 헌혈참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의 헌혈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참여 동기는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28, p=.001$),

보건계열 학생의 헌혈참여 동기가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8.79, 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그룹이 건강상태가 '나쁘다'이거나 '보통이다'고 지각하는 그룹보다 헌혈참여 동기가 높았다. 헌혈경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1.14, 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 헌혈경험이 5회 이상인 그룹이 1~4회의 헌혈경험과 헌혈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헌혈참여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헌혈참여 계획 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6.23, p<.001$) 향후 헌혈참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의 헌혈참여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는 이타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6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는 헌혈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7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이타성은 헌혈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5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ltruism,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N=200)

Variables	Altruism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Altruism	1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354**	1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361**	.578**	1

* $p<.05$, ** $p<.001$

3.5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Table 5와 같다.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헌혈참여 동기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와 헌혈참여 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의 전공계열, 지각된 건강상태, 헌혈경험 횟수, 향후 헌혈참여 계획을 모두 포함하였다.

Durbin-Watson을 이용한 오차 검정결과 1.808로 자기상관성이 없어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검정하였으며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는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7.943, p<.001$).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에 대한 태도($\beta=.41, p<.001$), 향후 헌혈참여 계획($\beta=-.21, p=.001$), 지각된 건강상태($\beta=.16, p=.004$), 이타성($\beta=.12, p=.037$), 헌혈경험 횟수($\beta=.12, p=.041$)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448로 이들 변수는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를 44.8%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는 헌혈참여 동기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3. Altruism,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Altruism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3.15±.39	-2.26	.025	2.88±.40	-.46	.646	4.09±.95	-1.25	.211
	Female	3.30±.43			2.90±.36			4.27±.90		
Age	≤20 ^a	3.40±.53	9.67 (a,b,c)	<.001	2.89±.38	.63	.536	4.37±.89	2.98	.053
	21~22 ^b	3.26±.36			2.92±.35			4.24±.95		
	≥23 ^c	3.03±.33			2.84±.40			3.93±.81		
Major Department	Health related	3.36±.41	3.76	<.001	2.96±.35	2.71	.007	4.42±.90	3.28	.001
	Non-Health related	3.14±.41			2.82±.37			4.01±.88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a	3.14±.29	2.47	.087	2.79±.31	1.98	.141	3.91±.91	8.79 (a,b,c)	<.001
	Moderate ^b	3.23±.42			2.93±.33			4.02±.74		
	Good ^c	3.31±.47			2.91±.42			4.51±.97		
Experience of Blood Donation(Times)	0 ^a	3.24±.38	1.27	.283	2.88±.37	9.02 (a,b,c)	<.001	3.97±1.07	11.14 (a,b,c)	<.001
	1~4 ^b	3.22±.40			2.81±.32			4.15±.68		
	≥5 ^c	3.34±.53			3.10±.40			4.77±.89		
Future Plan for Blood Donation	No	3.10±.39	2.40	.017	3.45±.93	5.10	<.001	3.45±.93	6.23	<.001
	Yes	3.28±.43			4.39±.82			4.39±.82		

^{a,b,c}Scheffe multiple comparisons test; Different letters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N=200)

Variable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B	SE	β	t	p	R ²	Adjusted R ²	F	p	
Major Department	-.17	.10	.10	-1.66	.098	.465	.448	27.943	<.001	
Perceived Health Status	.19	.07	.16	2.93	.004					
Experience of Blood Donation(Times)	.15	.07	.12	2.06	.041					
Future Plan for Blood Donation	-.48	.14	-.21	-3.46	.001					
Altruism	.26	.13	.12	2.10	.037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1.02	.15	.41	6.86	<.001					

4. 논의

본 연구는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에 대한 태도, 향후 헌혈참여 계획의 여부, 지각된 건강상태, 이타성, 헌혈경험의 횟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9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헌혈에 대한 태도는 전공계열, 헌혈경험의 횟수, 향후 헌혈참여의 계획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건계열 전공 대상자, 헌혈경험의 횟수가 5회 이상인 그룹, 향후 헌혈참여 계획이 있는 그룹의 점수가 높았으며 헌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상자의 성별, 나이, 지각하는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헌혈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과 Yeom[8]의 연구에서 헌혈에 대한 태도 점수는 3.15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점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Kong과 Kim[15]의 연구에서는 2.94점으로 유사하였다. Kim과 Yoon[16]의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보건계열 대학생 간 헌혈지식과 인식은 차이가 있으며, 헌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헌혈횟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보건계열 대상자가 비보건계열보다 헌혈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생명존중과 봉사정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간호보건계열의 교육 환경적 특성이 대상자들의 헌혈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향후 헌혈참여 계획 여부는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헌혈참여 계획이 '있다'는 그룹이 '없다'고 응답한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헌혈참여 의지와 헌혈 동기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헌혈 동기가 헌혈참여 의지의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3,11]. Woo와 Park[3]은 헌혈 실천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헌혈 의도를 제시하였으

며, 헌혈참여 의지가 있다면 향후 직접적인 헌혈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Choi와 Lee[5]는 본 연구와 같은 대상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헌혈 후에 얻게 되는 외재적인 보상 동기가 헌혈참여 의지를 높여 준다고 하였다. 향후 헌혈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헌혈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헌혈증서나 봉사시간 외, 헌혈참여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기념품이나 대학생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재적 보상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룹보다 헌혈참여에 대한 동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도 건강상태가 보통인 그룹이 '나쁘다'는 그룹보다 헌혈참여 동기 점수가 높았다. 이는 Lee 등[17]이 본 연구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헌혈행위 참여 여부를 예측하는 데 가장 유의한 변수라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Hong과 Park[18]의 연구에서는 헌혈자의 헌혈 반복성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즉 헌혈참여의 반복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 이상 수준의 높은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헌혈 실천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과 기념품 선정에 대한 계획 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체육시설 이용권 지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이타성은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이타성 정도는 5점 만점에 3.25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나이, 전공계열, 향후 헌혈참여 계획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 22세 이하, 전공이 보건계열인 경우, 향후 헌혈참여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이타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상태나 헌혈경험 횟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헌혈경험에 따른 결과는 간호대학생 대상 Lim과 Yeom[8]의 연구와 보건의료인 대상 Kong과 Kim[15]의 연구에서 헌혈경험자와 헌혈 미경험자 간에 이타성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위 두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보건의료인의 이타성 점수는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 평균 점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전공이 보건계열인 대학생의 이타성 점수가 비보건계열의 이타성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헌혈참여 동기에 대한 Lee[9]의 연구에서는 헌혈에 대한 동기가 대가성이 없는 순수헌혈추구형인 경우 향후 헌혈에 재참여 의지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 지지하였다. 우리 사회와 대학이 사회적 책임감, 봉사활동,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포함하는 이타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활발히 한다면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실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헌혈경험 횟수는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헌혈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5.5%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 헌혈경험자는 20.5%였다. 5회 이상 헌혈에 참여했던 그룹의 헌혈참여 동기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으며, 세부적으로 1~4회 헌혈경험 그룹의 헌혈참여 동기 점수가 헌혈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i와 Lee[5]가 본 연구와 같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헌혈경험이 있는 헌혈자가 헌혈 무경험자보다 헌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헌혈참여 의지가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Kim과 Yoon[16]은 헌혈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헌혈 비경험 대학생에 비해 헌혈참여 의도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추후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헌혈버스의 대학내 유치와 헌혈캠페인 등 헌혈운동에 동참한다면, 대학생의 헌혈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헌혈 접근성과 기회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ee[9]는 헌혈자의 헌혈참여 동기를 이타적 동기(19.8%), 자기만족적 동기(26.2%), 순수헌혈추구형 동기(24.2%), 이익추구형 동기(29.8%)로 세분화하였다. Kong과 Kim[15]의 연구에서는 헌혈경험자의 가장 높은 헌혈 동기는 '헌혈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서'로 나타났으며, 헌혈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요인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책임감이라고 보고하였다. 국내 지속적인 헌혈유치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홍보교육이 필요하며[19], 헌혈에 대한 바람직한 지식과 태도를 갖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20]. 헌혈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다 [1]. 이상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헌혈에 대한 태도와 이타성 및 건강관리 증진 전략을 포함하는 헌혈참여 동기 향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에 대한 태도, 향후 헌혈참여 계획의 여부, 지각된 건강상태, 이타성, 헌혈경험 횟수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를 44.8% 정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헌혈에 대한 외부적 보상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부분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에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는 헌혈참여 동기의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실시되길 제언한다.

REFERENCES

- [1] <https://www.bloodinfo.net/need.do>.
- [2] Korean Red Cross. (2016). *Blood services statistics 2016 (11-1352000-000016-10)*. Seoul: Korean Red Cross.
- [3] C. H. Woo & J. Y. Park. (2017). Factors influencing in Intention and Execution of Blood Donation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4(2), 101-109. DOI : 10.5953/JMJH.2017.24.2.101
- [4] J. H. Sung. (2006).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ltruism of blood donors and non-blood don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5] E. H. Choi & H. S. Lee (2018).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Blood Donation in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2), 715-729.

- DOI : 10.21742/AJMAHS.2018.02.02
- [6] B. D. Hwang, C. H. Kim & K. W. Cho. (2009). A study on Attitude and Knowledge to Blood Donation in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3(1), 66-77.
- [7] S. J. Breckler & E. C. Wiggins. (1989). Affect versus evaluation in the structure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3), 253-271.
DOI : 10.1016/0022-1031(89)90022-X
- [8] S. M. Lim & Y. R. Yeo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Blood Donation Knowledge, Attitude and Altru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8), 68-76.
DOI : 10.22156/CS4SMB.2020.10.08.068
- [9] D. H. Lee. (2013). *Segmenting Blood Donors by Motivations and Strategies for Retaining the Donors in Each Seg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ju.
- [10] S. J. Condie, W. K. Warner & D. C. Gillman. (1976). Getting blood from collective turnips: volunteer donation in mass blood dri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3), 290-294.
DOI : 10.1037/0021-9010.61.3.290
- [11] J. Y. Park, S. Y. Yu & S. Y. Park. (2019). Factors Affecting Blood Donation Intention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27-37.
DOI : 10.5977/jkasne.2019.25.1.27
- [12] H. L. Choi. (1996). *(The)influence of volunteer service activity on the development of selfidentity and morali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3] J. H. Kong. (2014). *The Research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s Knowledge, Attitude and Altruism on Blood Do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4] M. H. Han. (2004). *A comparative study of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platelet apheresis donation at hospitals and blood donation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15] J. H. Kong & M. Y. Kim. (2000). Related Factors on the Blood Donation Experience among Healthcare Provider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4), 2628-2638.
DOI : 10.5762/KAIS.2015.16.4.2628
- [16] J. H. Kim & J. S. Yoon. (2015). Associ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garding Blood Dona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316-326.
DOI : 10.5392/JKCA.2015.15.10.316
- [17] E. N. Lee, Y. S. Song, H. O. Ju, J. Y. Kang, S. J. Kim, Y. J. Youn & J. H. Oh. (2006). Predictive Factors of Blood Don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1), 70-77.
- [18] K. H. Hong & H. R. Park. (2003). A Study on the Repeated Blood-Dona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Blood-dono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7(2), 333-341.
- [19] H. S. Choi. (2014). The Study of Health Information on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Their Blood Don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405-415.
DOI : 10.14400/JDC.2014.12.12.405
- [20] J. H. Yang. (2014). *The Factor of Undergraduate Student's Blood Do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조 남 희(Nam-Hee Jo)

[정회원]



- 200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초건강과학, 건강증진, 성인건강

· E-Mail : jnh1063@naver.com

이 순 영(Soon-Young Lee)

[정회원]



- 2015년 8월 : 경북대학교 보건학(보건학석사)
- 2018년 8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수료)
- 2017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아동건강

· E-Mail : sylee81@ikw.ac.kr